

# 전남 최초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2000여명 참여 '복직'

## 나주체육관 일대 박람회 현장 가보니

장애인 취업의 꿈 기회의 장  
73개 기업 184명 채용 목표  
곳곳에 면접 대기줄 길게 늘어선  
체험활동·멘토 프로그램 마련도

"취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장애인 일자리 행사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26일 오후 2시께 나주시 송월동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일대는 전남지역 최초로 개최된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장애인과 보호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비장애인 대비 취업 기회를 얻기 어렵지만 취업을 희망하거나, 진로를 정하고자 박람회를 찾은 장애인들은 곳곳에 마련된 취업 컨설팅 및 체험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다.

이들은 우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배치된 이력서를 작성한 뒤, 각자 희망하는 기업을 찾아가 면접을 요청했다.

특히 박람회장 중앙에는 직접면접을 실시하는 현장채용 전담 소제 기업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애인들은 손에 든 이력서를 수차례 확인하며 면접을 진행할 기업을 찾는 등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 면접을 보기 위한 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공공기관의 인기가 높았는데, 한국농어촌공사 부스 앞에는 10여명의 면접 대기자가 길게 늘어선기도 했다.

미처 면접을 준비하지 못하고 박람회에 참석한 이들은 취업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박람회장 한 켠에 마련된 포토 스튜디오에서 급히 이력서용 사진을 촬영하고 바로 면접 전선에 뛰어드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다양한 체험활동과 멘토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뚜렷한 취업 의사 또는 지원할만한 기업을 정하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해 도자기 공예체험, 드립백 만들기, 시각장애 안마 체험, 데이터라벨링 체험, 제과제빵사 직업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또 담양군청에서 근무하는 김상균 주무관 등 장애를 갖고 있지만, 성공적으로 취업한 선배들이 취업 정보 제공 및 후배들의 자신감 고취를 위해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보호자를 대동하거나 각 지역 복지관을 통해 단체 방문했는데, 이들은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 기회가 확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신장애 중증을 앓고 있는 정지운(21)씨는 "대학교 취업 센터에서 이번 박람회를 추천해 방문하게 됐다"며 "평소 한국농어촌공사에 관심이 있었



26일 오후 나주시 송월동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 체육관에서 전남 최초로 열린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가 많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73개 지역 기업들이 184명 채용을 목표로 참여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는데, 오늘 취업을 위해 필요한 것과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졸업 후 장애를 가진 선배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박람회 같은 장애인을 위한 고용 기회도 확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부권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부선임교사로 근무하는 장성주씨 역시 "센터 내 20대, 30대 학생들이 이번 박람회를 통해 취업에 대한 관심을 갖길 바란다"며 "장애인들은 비교적 취업 기회가 적어 채용 박람회 등 고용 기회가 더 제공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박람회가 일하는 꿈을 가진 장애인이 취업 성공의 꿈을 이루는 기회의 장이 되고, 경제적 자립과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고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람회는 '새로운 내 일(Job), 행복한 내일!'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 기업들의 구인난 해소 및 장애인 취업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지역 소재 공공기관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73개 기업이 184명 채용을 목표로 참석했다. 이 중 32개 기업이 현장채용을, 41개 기업은 간접 채용을 진행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세수 '30조 결손'... 2년 연속 '핑크'

### 12조 규모 지방이전 재원 감소에 광주·전남 국비 사업 차질 우려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핑크'라는 점에서, 국가 주도의 사업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세입추경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역대급 재정난을 겪고 있는 광주와 전남도 등 자치단체들도 정부의 세수 결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역의 낙후도 등을 해소할 정부 지원사업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정부 공간 사정에 따라 내년 사업 계획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12조원 규모의 지방이전 재원이 자동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세수재추계 결과를 발표하

고,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천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국세수입(344조1000억원)보다도 6조4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주요 세목(稅目)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가가치세만 2조3000억원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규모 결손에도 세입추경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관건은 재원 대책이다. 정부는 기금·여유돈을 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불용)으로 부족분을 메운다는 방침이지만, 기금·불용 카드만으로 대응하기에는 결손 금액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산 시점에 따라 타력적이기는 하지만, 지방이전 재원도 기계적으로 감액 조정된다. 관련법에 따라 내국세의 약 40%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즉, 세수결손 30조원을 기준으로 약 12조원의 지방이전 재원이 자동으로 감소하게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40홈런 - 40도루' 김도영에 쏠린 눈 KIA, 한화전 등 3경기 남아

KIA 타이거즈 '슈퍼스타' 김도영이 또 다른 기록 순간을 노린다.

26일 경기 없이 하루 쉬었던 KIA가 27일 대전에서 한화 이글스와 시즌 마지막 맞으로 격돌한다. 28일에는 사직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마지막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관련 기사 18면>

30일 NC와 홈 최종전에 앞서 진행되는 원정 두 경기에서 김도영이 '40홈런-40도루'를 위해 타석에 선다.

김도영은 지난 4월 25일 KBO 역사상 첫 '월간 10-10' 기록을 작성한 뒤 6월 23일에는 '전반기 20-20'에 성공했다. 이어 8월 15일에는 '최연소·최소 경기 30-30'까지 달성했다.

프로야구 43년 역사에서 에릭 테임즈만 유일하게 가입한 '40-40' 클럽, 김도영이 리그 두 번째이자 '토종선수' 누구도 이루지 못한 기록에 도전한다. 김도영은 지난 23일 삼성전에서 담장을 넘기고, 베이스를 홈치면서 38홈런-40도루를 기록하고 있다. 두 차례 더 담장을 넘기면 다시 한번 KBO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된다.

올 시즌 KIA와 KBO리그 흥행을 이끌었던 김도영이 시즌 마지막까지 야구팬의 시선을 사로잡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한국전력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미래산업의 성장은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기본이기에 한국전력은 전력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 한국전력은 전력질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

글로벌 에너지 리더 KEPCO  
국가 미래 성장 기여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01.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 1.08 kWh/일  
02.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0.36 kWh/일  
03. 세탁기 사용 시 세탁물은 모아서 사용하기 · 0.09 kWh/일

국가전력망은 국가경쟁력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

국민의 옆자리에 한국전력